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11, pp. 267-274, 2018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8.16.11.267

경영자능력과 영업권손상차손 인식

오현택
청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Goodwill Impairment and Managerial Ability

Hyun-Taek Oh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eongju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경영자능력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에 있어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재량적 재무보고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1년~2014년 사이에 영업권을 인식한 1,482개 기업-년 표본을 대상으로, 영업권손상차손을 종속변수로, 영업권손상징후와 경영자능력, 이익조정 관련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능력이 높은 경우, 손상징후에 따라 영업권손상차손이 보다 적절히 인식되고 있으며, 손상차손을 이익유연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정도가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영업권손상차손의 인식에 있어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재무보고 성향이 경영자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실증분석으로 연구의 유용성이 있으며, 향후에는 경영자능력이나, 영업권손상 징후, 그리고 이익조정 측정방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연구주제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경영자능력, 영업권손상차손, 이익유연화, Big-bath,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managerial ability on managers' opportunistic reporting discretion in recognizing the goodwill impairment losses after the adoption of K-IFRS. Cross-sectional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goodwill impairment losses are not recognized timely at the time of the goodwill impairment symptom, but rather managers make bad use of goodwill impairment losses as tools of income smoothing and big-bath. Managerial ability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goodwill impairment losses, but firms with more able managers recognize timely goodwill impairment losses when the symptom of goodwill impairment exists, and they use less income smoothing when the firms' expected pre-impairment earnings are abnormally high.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ability and manager' earnings management in goodwill impairment accounting.

Key Words : Managerial ability. Goodwill impairment, Income smoothing, Big-bath, K-IFRS

1. 서론

2011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상장기업들은 원칙중심적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도 감모상각에서 손상차손 인식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기준서에서는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거나, 손상징후가 있을 때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영업권 손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때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Cheongju University (2016.03.01.~ 2019.02.28.)
*Corresponding Author : Hyun-Taek Oh(oht0452@cju.ac.kr)
Received August 30, 2018 Revised October 4,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으로 감소시키고 영업권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전 기간에 손상차손 인식으로 감액된 영업권은 다시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영업권손상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자는 영업권을 할당하는 현금창출단위의 개수나 현금창출단위에 할당하는 영업권의 금액,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함에 있어 재량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K-IFRS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재무재표에 더 잘 반영하여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영업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미래성과에 대한 추정이 필수적인데, 경영자들은 보다 재량권이 많이 주어지는 K-IFRS 규정체계 하에서 영업권의 공정가치 측정에 자신의 기회주의적인 동기에 따라 재량적인 회계처리 선택이 가능하다. 이러한 회계적 재량권은 경영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미래이익이나 현금흐름에 대한 사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1-3].

영업권손상차손은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보로 인식되고 있지만[4], 많은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IFRS가 적용된 이후에 경영자들은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7]. 예를 들어, AbuGhazaleh 등[5]은 영업권손상이 최근의 경영자 변동상황 및 경영자의 이익유연화, big-bath 행위[1]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고경영자이론(upper echelon theory)에 따르면, 기업의 성과는 경영자들의 차별화된 특성에 따라 좌우된다[8]. Demerjian 등(2012)[9]은 상대적으로 유능한 경영자들이 수익성 높은 사업기회를 보다 잘 식별해 낼 수 있고, 주주들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원을 보다 잘 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경영자들은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기업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능한 경영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경향이 낮으며, 공시된 회계이익 정보의 질도 상대적으로 보다 우수함을 보여주었다[10-12].

따라서 경영자능력이 영업권손상차손과 기업의 경제적 상황의 관련성을 향상시키고, 영업권손상차손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감소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들이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함에 있어서 영업권손상 징후를 보다 적절히 반영하며,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영업권손상징후는 Ramanna-Watts[6]와 Li-Sloan[7]에서 사용된 조작적 정의에 기초하여 측정하며, 이익유연화와 big-bath 정도를 경영자들의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 행위로 간주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본 연구는 경영자능력이 영업권손상차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영업권손상과 경영자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장시켰다. 특별히 영업권손상차손과 영업권손상 징후 사이의 관련성은 보다 유능한 경영자를 보유한 기업들에서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경영자들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는 원칙중심적인 K-IFRS 체계에서는 재량적 회계처리 선택시 경영자능력이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재무보고 정책결정자나 주주들에게 유용하다.

2. 가설설정과 연구설계

2.1 가설설정

영업권손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영업권손상이 주가[4], 경영자보상[13], 채권신용도[14]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주는 영업권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연구들이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영업권손상차손은 기업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동기에 의해서도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영업권손상차손은 과도한 합병대가의 지급이나 미래수익성의 감소[4]에 의해 발생될 뿐만아니라, 투자기회, 자산수익률(ROA), 기업규모, 부채비율[15] 이외에도 부채계약, 보너스계약, CEO 임기, 성장기회[16] 등에 의해서도 발생된다. Sun[17]은 보다 유능한 경영자가 영업권손상차손을

1) 이익유연화(income smoothing)란 보고이익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고이익을 목표이익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big-bath란 과거에 인식하지 않은 손실이나 미래 잠재적 손실까지 한꺼번에 손실에 반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잘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Kabir and Rahman[18]은 강력한 지배구조는 영업권손상차손과 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높여주지만, 손상차손인식 차감전 이익이 음(-)인 경우, 그리고 경영자의 임기 첫해의 발생하는 손상차손 인식을 기회주의적으로 사용하려는 동기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성과와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경영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Truman[19]은 보다 유능한 경영자들은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익예측치를 공시하고, 그러한 이익예측치 공시는 기업의 시장가치에 반영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Demerjian 등[12]은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에 기초한 경영자능력에 대한 새로운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경영자능력과 이익의 질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보다 유능한 경영자들은 발생주의 회계정보에 상대적으로 보다 적절한 판단과 정확한 추정치를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익의 질이 높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경영자능력에 대한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보다 유능한 경영자들은 이익조정하는 경향이 낮으며, 감사보수를 더 감소시킬 수 있고[21],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익을 유연화 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21].

만약 유능한 경영자가 회계처리의 재량적 특성을 보다 잘 사용하여 회계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영업권 손상검사에 내재된 경영자의 판단이나 추정이 유능한 경영자의 경우 보다 적절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능한 경영자들은 영업권 손상검사에 내재된 판단이나 추정의 기회주의적인 사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경영자능력은 영업권손상차손과 영업권손상 징후 사이의 관련성을 증가시킨다.

가설 2: 경영자능력은 영업권손상차손과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 사이의 관련성을 감소시킨다.

2.2 연구모형

가설검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회귀분석한다.

$$GWIL = \alpha_0 + \alpha_1 MA + \alpha_2 GWSP + \alpha_3 MA \times GWSP + \sum CONTROLS\ (TENU, SIZE, LEV, ROA, BIG4, LOWN, FOWN, MK, IND, Yr) + \varepsilon_i \quad \cdots\cdots (1)$$

$$GWIL = \beta_0 + \beta_1 BATH + \beta_2 SMTH + \beta_3 MA + \beta_4 BATH \times MA + \beta_5 SMTH \times MA + \beta_6 GWSP + \sum CONTROLS + \varepsilon_i \quad \cdots\cdots (2)$$

연구모형 (1)과 (2)는 각각 가설 1과 가설 2를 검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종속변수인 GWIL은 매출액으로 표준화된 영업권손상차손 금액이다. GWSP는 Ramanna-Watts[6]와 Li-Sloan[7]에 의해 제시된 방법으로 측정된 영업권손상 징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2] GWSP(R-W)은 2년간 연속된 장부가액-시장가치비율(book-to-market ratios; BTM)이 1보다 크면 1의 값을 가지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0을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형태이다. 한편 GWSP(L-S)는 BTM 값이 1보다 크고,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경우 1의 값을 가지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진다. BATH와 SMTH는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조정행위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BATH는 경영자의 big-bath행위를 SMTH는 경영자의 이익유연화 행위를 나타낸다. BATH는 영업권손상차손 인식 전 이익변화가 전체표본의 음(-)의 값 중위수 보다 작을 경우 그 값을 나타낸다. SMTH는 영업권손상차손 인식 전 이익변화가 전체표본의 양(+)의 중위수 보다 큰 경우에 그 값을 나타낸다. MA는 Demerjian 등[9]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측정된 경영자능력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연구모형을 회귀분석함에 있어서, 상호작용변수들이 가설검정을 위한 관심변수들이다. 만약 α_3 값이 양(+)의 값을 나타낸다면 가설 1이 채택되고, β_4가 양(+)의 값을 갖고 β_5가 음(-)의 값을 나타낸다면 가설 2가 채택된다. 가설 1이 채택된다면, 유능한 경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영업권손상차손과 영업권손상 징후 사이의 관련성이 유능하지 않은 경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가설 2가 채택된다면, 유능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영업권손상차손과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 사이의 관련성

2) Ramanna-Watts(2012)의 방법으로 측정된 GWSP는 GWSP(R-W)로, Li-Sloan(2017)의 방법으로 측정된 GWSP는 GWSP(L-S)로 명명한다.

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5-7,17,18]에서 영업권 손상차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써 공통적으로 사용된 통제변수들을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TENU는 CEO의 근무연수의 자연로그 값이고, SIZE는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이다. LEV는 부채/총자산으로 측정된 부채비율이고, ROA는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으로 측정된 자산수익률을 의미하며, BIG4는 감사법인이 big4인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LOWN은 최대주주지분율을, FOWN는 외국인투자지분율, MK는 기업이 상장된 시장을 의미하는 변수로 유가증권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에는 1의 값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2의 값을 가지며, IND와 Yr은 각각 산업더미변수와 연도더미변수이다.

2.3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을 표본기업으로 선정하였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2011년부터 표본기업을 추출하여 재무제표에 나타난 회계정보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금융업에 속한 기업들과,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들, 그리고 관련 변수들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가 없는 기업들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추출과정 결과 3,834개 기업-년 표본이 추출되었다. 이들 기업들 중에서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의 기초 재무상태표, 혹은 기말 재무상태표에 영업권이 인식되지 않은 기업들은 제외하고, 1,482개 기업-년 표본을 최종 표본으로 선출하였다. 이들 기업 중에서 381개(전체 표본의 25.7%) 기업-년 표본이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기업들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에 104개(27.3%), 2012년에 84개(22.0%), 2013년에 88개(23.1%), 2014년에 105개(27.6%)로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극단치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극단치의 값을 99%와 1%의 값으로 변환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3. 실증분석 결과

3.1 기술적 통계

Table 1은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한 표본 기업들(381개)과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표본 기업들(1,101개) 각각에 대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관련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량을 보여준다.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들의 영업권손상차손 금액은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6.3%에 해당하며, 경영자능력의 평균값은 -0.035이다.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표본기업들의 경영자능력의 평균값은 -0.012로서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들의 평균값 보다 크다. 이는 보다 유능한 경영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영업권의 손상을 보다 적절하게 예방하였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들은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기업들에 비하여, 자산수익률(ROA)과 최대주주지분률(LOWN)이 낮고, big4 감사법인에 감사받지 않고 있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goodwill impairment losses (n=381)		no goodwill impairment losses (n=1,101)		Difference of means	t-statistic
	mean	median	mean	median		
GWIL	**0.06**	**0.01**	**0.00**	**0.00**	**0.06**	**15.76*****
MA	**-0.04**	**-0.03**	**-0.01**	**-0.01**	**-0.02**	**-2.33****
L-S	0.25	0.00	0.27	0.00	-0.02	-0.75
R-W	0.40	0.00	0.41	0.00	-0.01	-0.15
BATH	-0.08	0.00	-0.07	0.00	-0.01	-0.20
SMTH	**0.08**	**0.00**	**0.03**	**0.00**	**0.05**	**6.73*****
TENU	1.62	1.61	1.69	1.79	-0.076	-1.27
SIZE	26.32	25.92	26.36	26.06	-0.03	-0.34
LEV	88.80	66.72	86.08	68.54	2.72	0.55
ROA	**-0.00**	**0.02**	**0.03**	**0.03**	**-0.03**	**-5.16*****
BIG4	**0.59**	**1.00**	**0.64**	**1.00**	**-0.05**	**-1.58***
LOWN	**37.07**	**36.14**	**40.08**	**40.15**	**-3.02**	**-3.05*****
FOWN	8.58	2.75	7.74	2.34	0.84	1.25
MK	**1.58**	**2.00**	**1.50**	**2.00**	**0.08**	**2.78*****

***, ** and * denote to be significant at the level of 1%, 5% and 10% respectively.

Variable definitions: GWIL= goodwill impairment losses divided by sales; MA= managerial ability score; L-S= goodwill impairment symptom by Li and Sloan; R-W= goodwill impairment symptom by Ramanna and Watts; BATH= values if the change of pre-impairment earnings is smaller than median of negative value samples and otherwise 0; SMTH= values if pre-impairment earnings change is greater than median of positive value samples and otherwise 0; TENU= LN(CEO tenure); SIZE= LN(total assets); LEV= liabilities/ total assets, ROA= net income/ total asset at t-1; BIG4= 1 if auditor belongs to big4 audit firms and otherwise 0; LOWN= the ratio of largest shareholder and related party shareholding; FOWN= the ratio of foreign investor ownership; MK= 1 if it is KSE listed firm, or 2 if it is KOSDAQ listed firm.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두 표본집단 사이에는 영업권손상 징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영업권손상차손은 기업들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경영자들의 특성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2)	-0.06*	1					
(3)	-0.05*	0.15**	1				
(4)	0.63**	0.01	0.09**	1			
(5)	-0.00	0.01	0.03	0.02	1		
(6)	-0.03	-0.06*	-0.10**	-0.16**	0.48**	1	
(7)	0.02	0.11**	-0.032	0.02	-0.00	-0.01	1
(8)	-0.10**	0.03	0.030	-0.07**	0.09**	0.12**	-0.21**
(9)	-0.22**	0.24**	0.16**	-0.05	-0.09**	-0.12**	0.14**
(10)	-0.06*	0.01	0.11**	-0.11**	0.02	0.03	-0.14**
(11)	-0.04	-0.01	-0.02	-0.04	-0.05	0.03	-0.14**
(12)	-0.03	0.04	-0.03	0.03	0.22**	0.10**	-0.06*
(13)	-0.07**	0.00	-0.04	-0.04	-0.09**	-0.04	-0.09**
(14)	0.09**	-0.00	0.01	0.04	-0.22**	-0.14**	0.17**

	(8)	(9)	(10)	(11)	(12)	(13)
(8)	1					
(9)	0.21**	1				
(10)	0.18**	-0.30**	1			
(11)	0.46**	0.16**	-0.00	1		
(12)	0.14**	0.14**	-0.02	0.23**	1	
(13)	0.59**	0.23**	-0.12**	0.30**	-0.16**	1
(14)	-0.61**	-0.08**	-0.04	-0.28**	-0.24**	-0.34**

Reliability levels and variables are defined as in Table1.
(1)GWIL, (2)MA, (3)BATH, (4)SMTH,
(5)R-W, (6)L-S, (7)TENU, (8)SIZE, (9)ROA,
(10)LEV, (11)BIG4, (12)LOWN, (13)FOWN, (14)MK

Table 2는 관련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영업권손상차손과 경영자능력 사이에는 음(-)의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유능한 경영자들이 영업권손상을 잘 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업권손상차손은 big-bath(BATH)와는 음(-)의 유의적인 관련성을 그리고 이익유연화(SMTH)와는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보여줌으로써, 경영자들이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의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을 경우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영업권손상차손은 영업권손상징후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K-IFRS 채택 이후에 경영자들은 부여된 회계처리 재량권을 보다 기회주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영업권손상차손은 기업규모(SIZE), 자산수익률(ROA), 부채비율(LEV), 외국인투자지분율(FOWN)과는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사이의 가장 큰 상관계수는 0.631이고,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분산팽창인수(variance inflation factors)는 모두 3을 넘지 않아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2 영업권손상차손과 영업권손상 징후

Table 3은 총 표본기업(1,482개)과 영업권손상차손 인식 표본기업(381개)에 대한 연구모형 (1)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예상과 달리, 영업권손상징후(GWSP=L-S)는 전체 표본기업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가지며,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한 표본기업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업권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가 기업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기 보다는 오히려 K-IFRS 채택 이후에 경영자들의 기회주의적인 동기가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경영자능력(MA)의 계수는 예상대로 음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Table 3. Effect of managerial ability on association between goodwill impairment losses and impairment symptom (Dependent variable = GWIL)

variables	Full sample		Goodwill impairment losses sub-sample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Intercept	-0.102	-1.873*	-0.229	-1.162
MA	-0.010	-0.777	-0.019	-0.441
GWSP (L-S)	-0.007	-1.683*	-0.015	-1.004
MA× GWSP	**0.045**	**1.655***	**0.156**	**1.706***
TENU	0.002	1.290	0.009	1.305
SIZE	0.004	1.956**	0.009	1.262
ROA	-0.209	-9.039***	-0.457	-6.551***
LEV	0.000	-4.850***	0.000	-4.435***
BIG4	-0.001	-0.203	0.001	0.048
LOWN	0.000	0.577	0.000	0.819
FOWN	0.000	-1.652*	-0.001	-1.327
MK	0.011	2.351**	0.026	1.523
Industry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Obs.	1,482		381	
Adj. R^2	0.078		0.172	

Reliability levels and variables are defined as in Table1.

경영자능력과 영업권손상 징후 상호작용변수(MA×GWSP)의 계수 값은 전체 표본기업(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0.045(0.156)로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능력이 영업권손상차손과 영업권손상 징후 사이의 관련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므로, 가설 1은 채택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들과 달리, 영업권손상차손은 CEO의 근무기간(TENU), 감사의 질(BIG4), 최대주주지분율(LOWN)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영업권손상 징후를 GWSP(R-W)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도 경영자능력은 영업권손상차손과 영업권손상에 대한 경제적 징후의 관련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3.3 영업권손상차손과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재무보고 관련성

Table 4는 경영자능력이 영업권손상차손과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재무보고 유인과의 관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Panel A는 영업권손상 징후를 L-S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의 회귀분석 결과이고, Panel B는 영업권손상 징후를 R-W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Panel A에서, BATH의 회귀계수는 전체 표본기업들에 대해서는 -0.024이고,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0.095이다. 이는 영업권손상차손 인식 전 이익이 평소보다 낮을 경우, 경영자들은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더 낮추려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SMTH의 회귀계수는 표본기업 전체에 대해서는 0.326이고,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0.444로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들이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의 이익이 평소보다 클 경우에는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낮추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R-W로 영업권손상 징후를 측정한 경우(Panel B)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K-IFRS 채택이후, 영업권손상차손을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동기를 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1)의 회귀분석 결과와 달리 경영자능력(MA)과 영업권손상 징후(GWSP=L-S)는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진다. 그러나 영업권손상 징후를 R-W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경영자능력 계수만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들에서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진다.

Table 4. Effect of managerial ability on association between goodwill impairment losses and managers' reporting opportunism (Dependent variable = GWIL)

Panel A: Impairment symptom(GWSP) = L-S

variables	Full sample		Goodwill impairment losses sub-sample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Intercept	-0.060	-1.421	0.010	0.082
MA	0.015	1.362	0.056	1.833*
GWSP	0.009	2.582***	0.017	1.842*
BATH	-0.024	-2.813***	-0.095	-3.531***
SMTH	0.326	29.209***	0.441	21.493***
MA×BATH	**-0.024**	**-0.392**	**-0.060**	**-0.304**
MA×SMTH	**-0.336**	**-3.884*****	**-0.699**	**-3.827*****
TENU	0.001	0.829	0.002	0.478
SIZE	0.002	1.228	-0.001	-0.115
ROA	-0.145	-7.938***	-0.219	-4.840***
LEV	0.000	-1.715*	0.000	-1.595
BIG4	0.004	1.293	0.004	0.422
LOWN	0.000	-1.351	0.000	-0.107
FOWN	0.000	-0.907	0.000	-0.776
MK	0.010	2.845***	0.011	1.030
Industry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Obs.	1,482		381	
Adj. R^2	0.449		0.674	

Panel B: Impairment symptom(GWSP) = R-W

variables	Full sample		Goodwill impairment losses sub-sample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Intercept	-0.070	-1.666*	-0.031	-0.248
MA	0.014	1.243	0.054	1.737*
GWSP	-0.003	-0.837	-0.003	-0.320
BATH	-0.026	-2.976***	-0.095	-3.511***
SMTH	0.322	29.084***	0.435	21.350***
MA×BATH	**-0.033**	**-0.524**	**-0.066**	**-0.332**
MA×SMTH	**-0.329**	**-3.803*****	**-0.675**	**-3.687*****
TENU	0.001	1.005	0.002	0.567
SIZE	0.002	1.630	0.001	0.291
ROA	-0.154	-8.430***	-0.237	-5.252***
LEV	0.000	-1.995**	0.000	-1.848*
BIG4	0.004	1.137	0.003	0.333
LOWN	0.000	-1.029	0.000	0.027
FOWN	0.000	-1.260	0.000	-0.922
MK	0.009	2.549**	0.012	1.122
Industry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Obs.	1,482		381	
Adj. R^2	0.447		0.672	

Reliability levels and variables are defined as in Table1.

Panel A(GWSP=L-R)에서 MA×SMTH 상호작용변수는 전체표본에서는 -0.336이고, 영업권손상차손을 인

식한 표본기업에서는 -0.699로 유의적인 음(-)을 값을 나타내는데, Panel B (GWSP=R-W)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영업권손상차손 인식 전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이익을 유연화시키는 이익조정 행위가 보다 유능한 경영자의 경우에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MA×BATH 상호작용 변수는 Panel A와 B 모두에서, 음(-)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능력과 관계없이, 경영자들은 영업권손상차손 인식 전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이익을 낮추는 big-bath 이익조정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영자능력은 이익유연화 이익조정 행위를 감소시키지만, big-bath 이익조정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므로, 가설 2는 기각된다. 통제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연구모형 (1)의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482개 기업-년 표본을 추출하여,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에 있어서 경영자능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특별히 경영자능력이 영업권손상차손과 영업권손상 징후의 관련성을 증가시키고,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이익유연화, big-bath-의 관련성은 약화시키는 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K-IFRS 채택이후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은 영업권손상에 대한 경제적 징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영자들은 이익유연화나 big-bath와 같은 이익조정을 위해 영업권손상차손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능력과 영업권손상징후, 이익유연화, big-bath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보다 유능한 경영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영업권손상차손과 영업권손상징후 사이의 관련성이 높아졌으며, 이익유연화를 위한 이익조정 방법으로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영자능력과 관계없이, 경영자들은 영업권손상차손을 big-bath 이익조정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에 있어서 K-IFRS의 재량권을 경영자들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K-IFRS를 적용하고 개선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입안자들이나 규제담당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업권손상차손 인식과 같이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처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통제하는 데에는 경영자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줌으로서 주주들에게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경영자능력이나, 영업권손상 징후, 그리고 이익조정 측정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변수들의 측정방법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변수들의 측정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경영자능력이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재량적 회계처리와 재무보고 방법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REFERENCE

[1] H. Kabi & A. Rahman. (2016).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in accounting discretion under IFRS: goodwill impairment in Australia. *Journal of Contemporary Accounting & Economics, 12,* 290-308.

[2] H. R. Kim. (2017). The effect of employee and creditor corporate governance on earning manage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213-219.

[3] S. H. Ji & Y. M. Kwak. (2017). K-IFRS reconciliations and predicting future earning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283-291.

[4] Z. Li, P. K. Shroff, R. Venkataraman & I. X. Zhang. (2011). Causes and consequences of goodwill impairment losses.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6,* 745-778.

[5] N. M. AbuGhazaleh, O. M. Al-Hares & C. Roberts. (2011). Accounting discretion in goodwill impairments : UK evi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 Accounting, 22(3),* 165-205.

[6] K. Ramanna & R. L. Watts. (2012). Evidence on the use of unverifiable estimates in required goodwill impairment.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7,* 749-780.

[7] K. Li & R. G. Sloan. (2017). Has goodwill accounting gone bad? *Working paper.*

[8] D. C. Hambrick & P. A. Mason. (1984). Upper echelons: The organization as a reflection of its top manage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2),* 193-206.

[9] P. Demerjian, B. Lev & S. McVay. (2012). Quantifying managerial ability: A new measure and validity tests. *Management Science, 58(7),* 1229-1248.

[10] J. Francis, D. Nanda & P. Olsson. (2008). Voluntary closure, earnings quality, and cost of capital.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1),* 53-99.

[11] W. Ge, D. Matsumoto & J. H. Zhang. (2011). Do CFOs have style?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individual CFOs on accounting practic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8(4),* 1141-1179.

[12] P. Demerjian, M. Lewis, B. Lev & S. McVay. (2013). Managerial ability and earnings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88(2),* 463-498.

[13] M. Darroungh. L. Guler & P. Wang. (2014). Goodwill impairment losses and CEO compensation.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29(4),* 435-463.

[14] L. Sun & J. H. Zhang. (2017). The impact of goodwill impairment losses on bond credit rat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 Information Management, 25(1),* 2-20.

[15] J. M. Godfrey & P. S. Koh. (2009). Goodwill impairment as a reflection of investment opportunities. *Accounting and Finance, 49(1),* 117-140.

[16] A. Beatty & J. Weber. (2006). Accounting discretion in fair value estimates: An examination of SFAS 142 goodwill impair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4(2),* 257-288.

[17] L. Sun. (2016). Managerial ability and goodwill impairment. *Advances in Accounting, Incorporating Advances in International Accounting, 32,* 42-51.

[18] H. Kabir & A. Rahman. (2016).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in accounting discretion under IFRS: Goodwill impairment in Australia. *Journal of Contemporary Accounting & Economics, 12,* 290-308.

[19] B. Trueman. (1986). Why do managers voluntarily release earnings forecas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8,* 53-71.

[20] G. V. Krishnan & C. Wang. (2015). The relation between managerial ability and audit fees and going concern opinion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34(3),* 139-160.

[21] P. Demerjian, M. Lewis-Western & S. McVay. (2017). How does intentional earnings smoothing vary with managerial ability? *Working Paper.*

오 현 택(Oh, Hyun Taek) [정회원]

- 1987년 8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1992년 2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1992년 3월 ~ 1997년 8월 :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교수
- 1997년 9월 ~ 현재 :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재무회계, 정부회계, 회계감사, 세법
- E-Mail : oht0452@cju.ac.kr